東亞日報
夕刊
八月二十九日(木)

軍縮條約廢棄時機에 完全히意見一致

案文은四日까지의閣議에上程

訓令內容의決定은遲延

軍縮豫備會談은 十一月初부터再開

本年末에는結論에到達?

政民政策協定 工作漸進行

政友도誠意로對處

原田男首相訪問

◇……蘇聯陸軍의자랑인騎兵……◇

墺地利首都警察이 國衛國兵士를逮捕

나치스黨員이多數編入되어 나치스와通信하든關係로

過般의나치스暴動 計劃確證蒐集

各國의判定언으려고

"北鐵幹部의 撤退說은虛說"

타스通信否定

不遠北鐵機構의 全般的大改革

蘇聯側의 專橫을 一掃하려고 滿洲國에서斷行決定

赤色테로의損害를 支拂運賃에서控除

關東軍戰區當局決意

政府對政友의 貴院側觀測

今後進行重要視

實行時期는 日蘇開戰時

蘇聯挾擊을目標로 獨波의軍事密約

波蘭은우크라이나地方을 獨逸은波蘭廻廊을獲得

波蘭首相 스드스키元帥와外相베크氏

在滿領事館과警察 紛爭事件解決

調停折衝會議結果

三省次官協議

全朝鮮工業者大會

戰艦改裝、建造 海軍整備擴張

佛海相、記者團에發表

大東公司社員 暴漢에被襲

兵器整備指導

農耕禁止令取消 陳情을却下

日本人十三名生活難

아리소나州 日本人排斥

蔣氏를中心으로 國府外交會議

汪氏와會見한顧、顏兩氏盧山에

歐米派地步確立劃策

辭令

消息

橫說竪說

大悲劇名作全集 〆切愈々迫る！ 千載の好期 重ねて來らず 即刻書店へ申込め！

日本人は讀らず讀め！ 小說嫌ひも本全集を讀んで初めて小說好きになる。居ながらにして每月一圓で映畫や芝居以上に樂しさを與へてくれる全集。しかも一册で一家和の源泉となる。不安くて面白くて爲めになる全集を見逃すなかれ。

全八卷 一册壹圓 〆切 八月三十一日

懷しい涙の「大衆名作全集」は完全に今年の讀書界を席捲し、大盛況裡に今て〆切日を迎へんとしてゐる。…

中央公論社

第一回配本「魔風戀風」大好評出來、第二回配本「金色夜叉」目下配本中。
順次配本の堂々たる內容は「生さぬ仲」柳川春葉「婦系圖」泉鏡花「己ケ罪」菊池幽芳「青春」小栗風葉「小鳥」村井弦齋「渦卷」渡邊霞亭、一粒選りの絕品。

南水災、西北低溫으로 三百萬石이 減收

京畿、忠北、全南北、江原五道普通

農林局最近調査發表

조선의 수도(水稻)작황에 관한 정을 총독부 농림국에서 二十九일에 발표하엿는바 이에 의하면 작년에 一천八백여만석에 비하면 약三백만석의 감수를 보이어 평년작(平年作) 一천六백四十만석 보다도 훨신 알으로들어서 一천五백만석에 불과하리라는 상상을 하게되엿다.

그런데 이와같은 천후가 부조하게된다 하면 이보다도 훨신 불량하야 절대적인 흉작을 불가피하리라 한다.

이제 그 작황을 들어보면 춘기에는 기온(氣溫)이 높고 모의생육이 양호하엿고 六월상순 에는 평안도선으로 우량(雨量)이 나리어 이것도 비교적 순조로 진행 되엿다.

그런데 그것이 七월중순 부터 남조선 지방에 비가오지 아니하야 한해를 입고 잇다가 동월 하순에는 호우로 범람하야 하천은 수해로 범하야 침수 유실 매몰등으로 상당 이상의 피해를 당하고 이방 서북(西北)조선에는 저온(低溫)과 일조(日照)가 적어저서 우습으로 면치 못하게되엿다.

그후에도 남조선에는 태풍(颱風)이 습래(襲來)하여 서북조선도 한랭한천후가 계속되고기온이 얄기가 없으며 벼가 자라지못하고 여오르는 도열병(稻熱病)이 발생되어 八월二十五일 현재의 작황은 평년작이하로 불량한상태에 빠지게되엿다.

이제 각도별작으로의 상황별로 입다하면 다음과 같다.

道名	作況概要
京畿道	稍良好
忠淸北道	普通
忠淸南道	稍不良
全羅北道	普通
全羅南道	普通
慶尙北道	不良
慶尙南道	不良
黃海道	稍不良
平安南道	稍不良
平安北道	稍不良
江原道	普通
咸鏡南道	稍不良
咸鏡北道	稍不良

備考

一、作況의 區分은 左의 標準에 依함

良 普通作況에 比하야 增收一割以上의 希望이 잇는것

稍良 普通作況에 比하야 增收三分以上一割以內의 希望이잇는것

普通 普通作況의 三分以內의 增減希望이잇는것

稍不良 普通作況에 比하야 減收三分以上一割以內의 希望의것

不良 普通作況에 比하야 減收一割을 超過할 希望의것

二、作況이라함은 作付反別의 增減에 關치안코 單히作柄의 良否를云함이오 普通作況이라 함은前五個年間에서中庸의作柄을 云함이다.

判決과 執行日問題 刑事審査會開催

法務局과 各法院幹部會合

十三日間愼重討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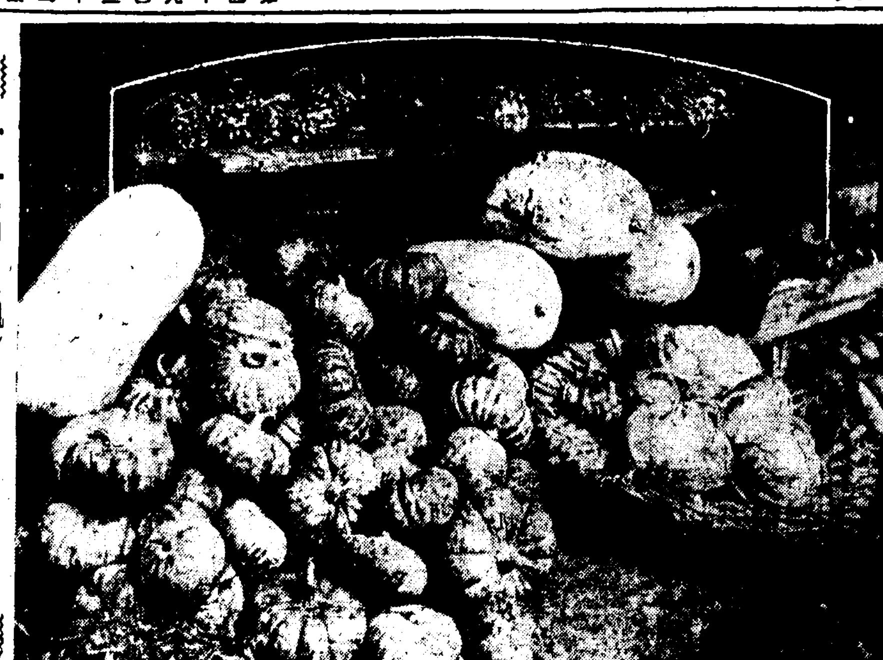
기보한바와같이 공산당 국내공작 위원회피고 김창수(金昌洙)(二○)에관한 업무와 검사의 집행에대한 차이가잇어 피고는 七十七일을 더형무소 생활을하게 되어 경성지방법원에 집행에대한 이의를 제기하여 방금 신중히 진행중에 잇거니와 재판소당국에서는 이사건을 심로중대시하야 형사심사회(刑事審査會)를 열기까지에 이르럿다 한다.

즉 고등법원 형사부에서는 부장 증영(增永) 판사를 비롯하야 오정(五井) 협(脇) 근본(根本)고등법원판사와 여기에 말광(末廣)복심법원 형사 재판장 촌전(村田) 지방법원 검사에 총독부 법무국 법무과 주천(酒見) 사무관을 회합하야 전후七회가 오는九월二일부터 十五까지 이사건을중심으로 신중히 토의하기로 되엿다.

즉 어떤때에는 피고에게 불리한 편이지마는 경우에따라서는 피고에게 유리한경우도 잇을것이므로 이런때에 잘못이없을 말하자면 판결과 철초를 세울터이라하야 이 형사심사회의 진행은 법서부터주목의 초점에 오르고잇다 한다.

失戀코賣春

二十九일 오전十시반경 시내본



가을의 味覺 누ー런 살진 호박

평서(本町署)에서 밀매음 혐의로 취조를 밧고잇든 여자가 나도 에 인이잇는 사람인데 아침밥사미을 론이없어서 그렇지나라는 혀황수설을 느끼노아 경관을 웃기일이 잇다.

그는 김정희(金貞姬)(二七)라는 여자로 평작 피라는 곳방아리의 처녀인데 수원(水原)군내에 원적을두고 일정한주소도없이 도라다니는 가련한사세에 二十九일오전 一시경에도 정처없이 잠드리잠안을 헤매이는중 二十五六세가량되어보이는 하생중의 청년이 유인하야 남대문통(南大門通) 一정목 으슥한 골목에서 폭행을하든 다음 미리 아침밥을 사먹을양으로 약속한 돈二원을 주지안코 도망쳐 버리엇다.

그래 전기 김정희는 부근파출소에 도적(盜賊)들잇다는 계출(屆出)을하엿는데 그는 가정도 상당하데 실업군에 정신이상을 일으키어 날을 못하는이므로 본정서에서는 그 보호자를 조사하라고 방금 보호 검속중하고잇는중이다.

治水委員會議에 卅餘通의陳情電報

水害地域災民의苦情

총독부 제一회의실에서 二十九일 오전九시부터 개최된 임시치수위원회(臨時治水委員會)는 명三十일까지 계속될터인데 제一일인 二十九일 오전중에는 우원(宇垣)총독의 훈시와 금정전(今井田)정무총감의 경과보고가 잇은후 지(穗積)토목과장으로부터 남조선수해상황보고와 하천기타 개수공사에 관한것을 설명하엿다. 그리고 二、三위원으로부터 질문한바가 잇고 오후에도 계속키로 되엇는데 개회벽두로부터 남조선 각지수해지역 이재민으로부터 三十여통의 진정전보가 치수위원회로 날러왓다 한다.

中國勞働者入國制限 中總領事抗議提出

百圓所持、일자리確實을條件 外事課와長時間協議

오는 九월一일부터 중국노동자 입국제한을 하기로하고 총독부에서 이에관한 취체규측을 제정하야 각도 경찰부장에게 지시한바 잇엇다함은 기보한바어니와 이문제는 용이한 문제가 아니라 하야 금二十九일 오전九시에 재경성중국총영사(中國總領事) 노춘방(盧春芳)씨가 총독부로 전중(田中)외사과장을 방문하고 二시간에금한 항의를 제출하엿다한다.

항의의 내용은 총독부측에서 비밀에부치고 말하지아니하나 입국하는 중국노동자가 현금 백원을 소지할것과 이정을소지한다하야도 노동할 일자리가 확실치아니하여서는 입국거절을 한다는것은 거의입국거절이나 마찬가지라는것을 가지고 엄중한 항의를 하엿다한다.

國際交誼上不當

關係當局에積極抗議

이에대하야 중국영사관 김조혜(金朝惠)영사는 다음과 같이 말하엿다.

만주사변전에는 六만명 가령되는 우리중국거류민은 사변 당시 반이나 줄엇다가 현재는 다시 四만一천여명에 달햇습니다.

역사상으로보아서 우리와 조선사람은 밀접한 관계를가지고잇으며 또 우리거류민이 조선에서 지금까지 피할 끼처본일이없다고생각합니다.

그러고 중국에서 조선노동자에게 아모러한 제한도없는이상 제한을 한다는것은 국제적교의로보아서 아니될일이라 생각하엿기때문에 총령사가 오늘외사과장을만나 항의를 한것입니다. 외사과에 회답은 아직 내가 총령사에게 말을 듣지못햇으니까 알수 없으나 벌효파는 잇슬줄 압니다만 않으로 작극적 항의를 각관계당국에 제의하랴고 합니다.

九回極東熱帶醫藥學大會

十月一日부터南京에서

五十餘各國代表參加

【남경특신】 극동열대의하약하대회(極東熱帶醫藥學大會)제九회대회는오는十월一일부터七일까지 남경에서 개최되는바 대회의 목적은 극동각국의 하계의 연락과 연구논문의 발표등 의하의발전을 위하는것이다 대회에 참가할대표인수는

中國二十名 日本十三名 印度一名 米國三名 比律賓三名 심蘭一名 馬來聯邦三名 澳門一名 安南一名 마카오二名

인데 조선대표도 여섯명을 참가시키기로 하엿다 하며 기타 개인자격으로 조시할 의학자도 수십명에 달한다.

대회역원은

名譽會長 行政院長 汪兆銘

同副會長 財政部長 孔祥熙

同 內政部長 黃紹雄

會長 衛生部長 劉瑞恒

名譽顧問 黃民誼

牛惠生 伍東德

대회회장 유서항씨는 각국대표들이 그도는 상해로오게되어 상해에서 초대위원회를 조직하엿고 패회후에는 국민정부에서 무료로 각국대표들을 초대하야 중국의각 명승지를 구경케할터이다. 참가대표는 四종이 잇는바

一、名譽會員

二、名譽顧問

三、會員

四、列席會員 會員三級或銀四十五元을 納入

대회에 참가하이는 자기장소로통지하야 피신하면 된다.

腦脊髓膜炎猖獗 死亡者二百九名

一月以來八月까지의統計

新患者續續發生

금년 一월이래로 맹렬한 세력을 가지고 발생되고 잇는 유행성 뇌척수막염(流行性腦脊髓膜炎)은 六월이래로 감세를 보이고 잇더니 八월들어 잡아들면서 또다시 증가하기 시작한다고 한다.

즉 지난 七월중에 총발생환자는 十四명에 불과하든것이 八월들어 잡아들면서 二十五일까지에 벌써 二十명의 신환자가 발생하엿다 한다.

종래에는 중부조선인 경성(京城)을 중심으로 남부조선인 경남북, 전남북, 충남북에 발생되고 잇든것이 八월이후로는 황해도(黃海道)평남북등에 발생되기 시작한다는 것이다.

총독부 위생과에서 조사한바에 의하면 一월이래의 총발생환자수는 四백二十七명이오 그중에서 사망자는 二백九명이오 현재의 환자는 二十八명이라 한다.

이것을 각도별로 본다하면 경기도가 十一명, 충남 一명, 전북 一명, 경북 二명, 경남 三명, 평남 五명, 평북 三명, 강원 一명, 함남에 一명으로 구분된다.

千餘學童의赤誠

全洞酒草節約해義捐

【안성】 안성읍내(安城邑內)안성공립보통학교(安城公普)학동 一천二백명이 이번 삼남수재동포를위하야 一제이 동정금을 걷어모은것이 十八원九十九전에 달하엿으므로 본보안성지국을 거처 본사에 보내엇다.

幼年校生의赤誠

【함흥】 함흥부내 산수정에 잇는 윤동리의 유년주일학교 어린이들은 남선수재 구제를위하야 한푼 두푼 모아가지고 지난二十七일 헌금一圓五十전을 본보함흥지국에 가저다가 이것이나마 번지못하나 저三남에잇는 불쌍한 어린이들에게 보내여달라고 간곡한 부탁을 하엿다한다.

公主嶺同胞 三南災民同情

【시경】 삼남수재의 참상을 듣고 공주령(公主嶺)재주 동포들은 연전수금 四원四十전을 모아 협성의 의연금으로 본보사경지국을 통하야 재해지역 동포에게 전해주기를 의뢰하엿다.

博川水害救濟 音樂演劇公演

【박천】 박천삼남수해구제연주회의원은 동아조선양지국 후원하에 지난二十七일 동오후八시三十분에 천도교박천종리원(天道敎)에서 공연 하엿든바 초만원의 성황을 이루엇으며 당장에서도 만흔 의연금의 출연이 잇엇슬뿐 아니라 장소단(長壽團) 예기의 특별출연도 잇어 인기는 자못 높앗으며 당야의 실수입은 본보 지국에 의탁하야 재지로 송금하게되엿다 한다.

在大阪醴泉人 故鄕爲한熱誠

【예천】 대판(大阪)에 잇는 예천인(醴泉人)들은 고향의 수해참상에 대하야 그냥잇을수없다고 그날그날 노동으로 연명해지내는 형편임에도 불구하고 동정금 一백七十전을 예천으로 보내엿다한다.

두婦人會至誠

【사하】 경남 동래군사하면(東萊郡沙下面)에잇는 하단부인회(下端婦人會) 당리(堂里)부인회에서 기하에우는 남동강연안 재민을위하야 푼돈이 모은 돈을 하단부인회에서는 지고 지난 二十七일에 본보사하지국에 찾어와서 얼마되지아니하는 돈이나마 전달하여달라하고 가저왓다고한다.

匙米、酒草節約 安州燕湖面民들이

【신안주】 안주군 연호면(安州郡燕湖面)에 잇는 리 비민들은 三남수재의 참보를 듣고 부인들은 조석으로 쌀을 한숨씩 저축하고 남자들은 주초를 절약하야 본지국에 의뢰하야 보내왓다.

赤誠의同胞愛 全洞民一致同情

【장성】 전남 장성군 북이면 원덕리(長城郡北二面元德里) 동민일동은 복옥이 나려쪼이는 폭양을 무릅쓰고 풀을 베어 제초(除草)하고 판매하야 푼푼이 모은돈 三원二十一전을 본지국에 의뢰하야 보내왓다고 하엿다.

永興鑛業職工들의 눈물겨운同情

【영흥】 당지의 유기직공(鍮器職工) 十二명은 자기들의 생활형편이 한수업시 궁해지만에도 불구하고 오직 재해동포에게 원안이라도 주어야겟다는 가곡한마음으로 매명二十전씩에 헌납, 그대표로 김창문(金昌文)이씨가 지난 二十五일 본보 영흥지국(永興支局)을 방문하고 의탁하엿다.

分錢을모아 安息敎會에서

【장지】 평남 용강군 지운면 입석리(立石里) 안식교회(安息敎會)에서는 신도들이 이재민을 위하야 四원六十七전을 본보지국에 의뢰하야 송금하엿다.

地下鑛夫들의 빗난同族愛

仁義金山 從業員들이 廿三圓을모아依托

수마의 독수에 걸린 四十만 동포의 처참한 정상은 깁흔 산속의 금광속까지 알려지어 조인원의 금광이 깊에도 동족애의 빗이 번지어 지엇다. 함남 북청군 이곡면(北靑郡泥谷面) 인의금산(仁義金山)의 종업원八十七명은 재기들이자 푼푼이 모아 二十三원 八十五전을 만들어 가지고 본사로 의뢰하야왓다.

山淸油坪里서 大瀑布發見

【진주】 지리산(智異山)은 남조선에잇는 영봉(靈峯)으로 방장산(方丈山)의 별명이잇서 三신산의하나로되어잇으며 그래 등산열이 왕성하야 점차 등산자의 수효도 증가하고잇는데 이때껏 세상에 드러지안은 대폭포를 요사이 새로발견하야 一층더 탐승객과등산가의 마음을 끄을게하고잇다. 그폭포란것은 산청군 三장면유평리(山淸郡三壯面油坪里)의산중에잇는데 폭이가 十메돌 높이가 四十여메돌이나되는 대폭포로서 이산중의 명찰인 대원사(大源寺)에서약 十리내외밧에 떨어저잇지 안타고한다.

米國랑체스타에서 「야세진」氏別世

연전교수 모씨에게 그의친우로부터온 편지에 의하면 미국랑체스타주에서 독실한 장사를 하고잇든 조선사람야세진(미국에서 사용하든 이름)이라는 청년이 얼마전에 병으로 사망하엿다한다. 그러나 그의 고향이 어디인지 친척이 누구인지 알수없으므로 아직 가매장을 하고 잇다는바 친척과 친구의 통지가 잇기를 그곳 친지들은 기다린다고 한다.

要視察人의 靜動을 市內各署嚴戒

금반九월중을기하야 시내 각경찰서 고등계에서는 각서와 서로 연락을취하야 요시찰인의 동정을 엄중히 경계하는동시에 빈번한 해외의정보를 근거로 만일을 방지하고저 활동하는중이라고 한다.

天氣豫報

七百五十四미리의 低氣壓은 全朝鮮海岸을 東進하고잇으며 高氣壓은 沿海州, 北海道, 滿洲等各地에 퍼저 氣溫이 低下하고잇다.

曇後晴

北朝鮮은 快晴하고 其他는 雲量中이며 南朝鮮內陸은 雨量五十미리쯤 보인다.

昨日氣溫 最高二十一度六 最低十七度三

美人을미끼로 富豪아들誘引

十五만원 토지를 전당햇다

發覺逮捕된詐欺團

전북 금제(金堤)부호의 외아들 이주동(李周東)을 꼬여내어 미인계로 그의 전재산을 사취코저 하다가 경찰에 검거된 백성엽(白星燁)송주섭(宋周燮)이창희(李昌熙)황정수(黃貞壽)(女子)등 四명은 기보하바와같이 그동안 종로서에서 엄중한 취조를 밧고 二十九일에 일건서류와함께 검사국에 넘기엇다한다.

그들은 전기 이주동이가 뚝뚝치못한것을 기화로 그의 외사촌되는 백성엽이가 그를 꼬여다가 부내 관수동(觀水洞)八十一번지 황정수의 집에 두고 그의 수양딸이라는 十五세된 여자를 그의 첩으로 정하고 그의 시가 약十五만원가량되는 토지를 전당하야 돈을 밧고 또는 방매하야 편취하려다가 발각체포된 대사기단으로 이같은 사기단이 최근에 와서 더욱 발호하는 현상이라 한다.

기쁜소식

복된이스라엘왕국은 이미잇 수르 늘에게 사로잡혀 가고 남된 그유대왕국에도 죄악이 심하야 마침내 바벨논에게 사로잡혀 가는 중에 때떠 ... 하나님께 도라오라 하나님께로 도라오면 거기서 생길 결과 세가지를 말하엿다

一、하나님께서도 저에게로 도라오신다 ...

二、그의 얼굴을 베푸사 다시 도라오게 하신다 ...

三、하나님의 얼굴을 도리켜 저희를 떠나지 안어 ...

원료물감 德天洋行 京城府茶屋町六番地 振替京城 一六六六番

生徒募集 文官養成科 商業·洋服·工藝 電氣·時計·農藝 (新入生) 朝鮮職業學院

生徒募集 京城YMCA學校 ◎英語科(一年生五○名·二、三年補缺若干名) ◎獨逸語科 ◎受驗科 ◎鮮語科 ◎女子英語科

寫眞師必要訣

士金 石金 高價買入 株式會社 京城德力 京城府明治町 平壤府旭町三 平壤出張所

獨逸製 世昌票지봉틀바늘

品質優良 價格低廉 미신店

求學生下宿

감자원 못十만의 구리코 당

태극성 광목

便所 防臭劑 香油

訃告

母親宜寧玉氏以老患今月廿八日(陰七月十九日)午後八時別世故玆以告訃

一九三四年八月廿八日

長子 金東元

次子 金東仁

三子 金東平

三南水災義捐金品

【本社接受=二十九日正午까지整理分】

現金累計 貳萬貳千五百圓

◎金五圓拾錢也 金川支局取扱 (第三回)

(內譯) 壹圓 市邊里基督敎會 五拾錢 同 李鎭九 五拾錢 同 沈玄澤 五拾錢 同 李月成 五拾錢 同 金貞順 五拾錢 同 金鶴順 參拾錢 同 李萬壽 參拾錢 同 李燦奎 貳拾錢 同 韓英子 拾五錢 同 韓相範 拾錢 同 李順伊 壹圓五錢 同 市邊里主日學校學生 拾錢 同 최을기 리덕봉 봉치봉 고순덕 윤봉히 김근녀 안성순 하상약 리근순 김복순 김래람 허음신 김재순 리순레 박용숙 七錢 同 김개선 五錢 同 김래삼 서복기 조복히 유순덕 박기순 박순레 김치성 안성숙 김송림 배음전 이순거 이윤섭 김명순 차옥순 이경임 拾參錢 長湍 임언년 拾錢 同 李寶鎬

◎金六圓五拾錢也 羅津支局取扱

(內譯) 貳圓 羅津邑新安學院長 俞致禎 五拾錢 同敎員 李秉燮 五拾錢 同生徒 朴世英 … 車鍾七 金七星 姜秉洙 杜大鳳 黃喆雲 金鏞浩 安金石 禹金玉 尹順女 金命玉 張寅培 李明淑 金璇玉 李王葉 金石哲 全金順 全龍雲 劉億金

◎金六圓四拾參錢也 羅津支局六回取扱 (送料七錢除 實入金六圓四拾參錢也)

李於德 羅仁實 尹吉彬 李允國 金仁浩 俞泰善 李昌福 鄭又石 鄭仁石 姜仁濟 金衡栽 南大宿 金斗玉 姿孝善 李龍珠 李淵澤 玄泰松 李明九 李亨九 李鉉津 許仁峯 金基順 (拾錢·五拾錢 各同)

拾錢 同 崔立淳 金燦濟 金金子 無名氏 姜柱成 李利永吉 安杞星 參拾錢 大館公普五年生 李德仁 五拾錢 朔州郡外南面水豐洞 洪鳳植 貳拾錢 同 姜健鎬

◎金參拾壹圓也 寧遠支局取扱

(內譯) 寧遠邑內 壹圓 金明奎 壹圓 朴京泰 壹圓五拾錢 申泰洹 壹圓 黃貫九 五拾錢 卓喆基 五拾錢 李吉善 壹圓 韓瓊深 五拾錢 金麗浩 五拾錢 邊順柱 五拾錢 金銀紅 五拾錢 安奇仙 五拾錢 崔承召 五拾錢 趙義賢 五拾錢 金濟鴻 五拾錢 朴三俊 壹圓 寧遠郡郡仲里 朴基彦 拾圓 寧遠邑內 金德俊 壹圓 同 白昌俊 壹圓 同 洪基範 壹圓 同 狠林酒造所 壹圓 同 姜朔駿 壹圓 同 白倫琬 壹圓 同 成貴鏞 五拾錢 同 李錦城 五拾錢 同 成安韓藥局 五拾錢 同 朴昌沁 五拾錢 同 李泰玲 五拾錢 同 金允秀 五拾錢 同 申愛花 五拾錢 同 金梨花

◎金拾六圓參錢也 素砂分局取扱 (送料八錢除 實入金拾五圓九拾五錢)

(內譯) 壹圓 富內面九山 進英學院兒一同 壹圓五拾錢 (富內面素砂里) 沈贊燮 壹圓 同 李大俊 壹圓 同 沈義燮 壹圓 同 金東根 壹圓 同 吳奉根 五拾錢 同 李明植 五拾錢 同 辛在元 六拾錢 同 宋子成 五拾錢 同 金聖會 參拾錢 同 李泰善 參拾錢 同 金慶會 參拾錢 同 金在得 參拾錢 同 蔡道錫 貳拾錢 同 金俊相 貳拾錢 同 金祥德 貳拾錢 同 沈仁燮 貳拾錢 同 金相俊 貳拾錢 同 姜壽山 貳拾錢 同 金合亘 貳拾錢 同 金在淵 貳拾錢 同 朴武卿 貳拾錢 同 李連花 貳拾錢 同 金慶默 拾錢 同 金在植 拾五錢 同 裵俊采 拾五錢 同 李萬奉 拾五錢 同 趙石俊 拾錢 同 沈應善 拾錢 同 李敬天 拾錢 同 金永昌 拾錢 同 吳亨根 拾錢 同 金井會 拾錢 同 朴卜成 拾錢 同 金千萬 拾錢 同 沈元燮 參拾九錢 同 李再逢 參拾九錢 同 金萬至

◎金九圓五拾錢也 長湍支局取扱 (第三回)

(內譯) 五拾錢 長湍郡山湖婦人會 박숙자 參拾錢 同 박금옥 김낙여 박윤대 리성옥 리일애 김근숙 장순득 리인니 리무임 장화윤 리사숙 조상순 빈영히 김부옥 김용잉 황대동 백복히 안정영 박진영 고재임 拾錢 同 최성레 하성순 안남수 리개잉 민경임 김영유 리옥심 김정명 윤순안 김섬환 윤섬녀 김남규 백영호 최보배 박양구 김명옥 로원주 최래영 림금순 김옥섬 장영삼 최기순 김

◎金五圓八拾錢也 鐵川支局取扱 (送料拾五錢除 實入金五圓六拾五錢也)

(內譯) 壹圓 鐵川支局員一同 壹圓 鐵川郡邑內里 金萬熙 壹圓 同 金甫雨 壹圓 同 安承乙 貳拾錢 鐵川郡鐵川面之岩里 鄭奇澤 拾錢 鐵川郡北面九山里 金載鐸 拾錢 上九少年團 金永根 拾五錢 同 高德元 拾錢 同 高萬石 拾錢 同 李達榮 拾五錢 同 韓仁洙 拾錢 同 吳己龍 拾錢 同 權英善 拾錢 同 朴順煥 五錢 同 邊順岩 五錢 同 裵在秀 五錢 同 姜興文 五錢 同 邊且至 拾錢 同 金顯台 五錢 同 李甲伊 五錢 同 李敎世 五錢 同 李哲學 五錢 同 千基德 五錢 同 金禹鐸 五錢 同 高慶元

◎金參圓參錢也 大田支局取扱

(內譯) 壹圓 大田郡杞城面佳水院里 李明熙 貳拾錢 同 李在連 貳拾錢 同 金泰榮 拾五錢 同 張志永 四拾錢 同 任聖在 拾錢 同 崔昌云 拾錢 同 金在連 拾錢 同 姜洪激 拾錢 同 禹命善 拾錢 同 金鍾文 拾錢 同 裵水學 拾錢 同 禹玉男 拾錢 同 無名氏 拾錢 同 崔玉得 拾錢 同 崔炳綺 拾錢 同 李一泳 拾錢 同 裵一煥 拾錢 同 白甫順

◎金貳拾六圓拾錢也 大舘支局取扱

(內譯) 貳圓 朔州郡大舘市 金恒源 壹圓 本社支局長 崔之興 壹圓 同 全炳燦 壹圓 同 朴炳峰 壹圓 同 朴禎河 壹圓 同 朴允禹 壹圓 同 半島商會 壹圓 同 鄭世雄 五拾錢 同 元麟瑞 五拾錢 同 崔日錫 五拾錢 同 鄭應京 五拾錢 同 黃雲巨 五拾錢 同 姜英濬 五拾錢 同 韓永官 五拾錢 同 金영在 五拾錢 同 金白泳 五拾錢 同 尹昌烈 五拾錢 同 金得世 五拾錢 同 東興商店 五拾錢 同 永昌商店 五拾錢 同 崔甸熙 五拾錢 同 黃海宜 五拾錢 同 申紅桃 五拾錢 同 高明玉 五拾錢 同 金春子 參拾錢 同 金泳淳 參拾錢 同 金熙錫 參拾錢 同 白寅燮 參拾錢 同 張步魯 參拾錢 同 明利旭 參拾錢 同 李仁植 參拾錢 同 崔尊錫 參拾錢 同 金明浩 貳拾錢 同 金辰玉 貳拾錢 同 朴允華 貳拾錢 同 洪成倫 貳拾錢 同 李炳侚 貳拾錢 同 崔根昌 貳拾錢 同 崔允鳳 貳拾錢 同 白彩庭 貳拾錢 同 崔倫錫 貳拾錢 同 崔圭典 貳拾錢 同 崔乙錫 貳拾錢 同 吳基鳳 貳拾錢 同 金得淵 貳拾錢 同 李炳奎 貳拾錢 同 富生利否 貳拾錢 同 張義堂 拾錢 同 金龍熙 拾錢 同 金洛龜 拾錢 同 金贊海 拾錢 同 朴泰황 拾錢 同 許三俊 拾錢 同 李春彬 拾錢 同 李鶴璉

◎金七拾壹圓五拾貳錢也 清安支局取扱 (送料金五拾錢除 實入金七拾壹圓貳錢也)

(內譯) 貳圓 本社支局長 李麟求 參圓 忠北槐山郡清安面 醸造組合 壹圓 同 任鳳彬 壹圓 同 李甫淳 壹圓 同 南基鎬 壹圓 同 崔壽永 壹圓 同 朴昌圭 壹圓 衡平社清安支部 壹圓 同 李學鳳 壹圓 槐山郡北二面花上里 朴麒來 參圓 槐山郡沙梨面梨谷里 李台鎬 五拾錢 忠北槐山清安面 林光克 五拾錢 同 閔丙玉 五拾錢 同 吳德遠 五拾錢 同 朴來遠 五拾錢 同 劉光烈 五拾錢 同 朴正圭 五拾錢 任鳳彬布木部 五拾錢 同 無名氏 五拾錢 同 劉泰榮 五拾錢 同 張基一 五拾錢 同 黃龍韓 貳圓 同 天成社 五拾錢 同 元和盛 五拾錢 同 白奉學 五拾錢 同 金水根 五拾錢 同 李鍾旋 壹圓 槐山郡清安面邑內里 曹漢寶 貳拾錢 忠北槐山清安面 鄭仁和 拾錢 同 宋榮仲 拾錢 同 李容熙 貳拾錢 同 禹鍾璟 貳拾錢 同 廷鳳熙 貳拾錢 同 趙漢德 貳拾錢 同 金思允 拾錢 同 池永錫 拾錢 同 禹顯渾 貳拾錢 同 吳順泰 拾錢 同 鄭萬大 五拾錢 同 無名氏 拾錢 同 崔仁均 貳拾錢 同 朴永權 貳拾錢 同 趙哲熙 貳拾錢 同 崔守經 貳拾錢 同 卞石根 貳拾錢 同 趙貞濟 貳拾錢 同 趙昌九 參拾錢 同 金龜演 參拾錢 同 金永權 貳拾錢 同 羅相喜 拾錢 同 金鍾坤 貳拾錢 同 孫錫山 參拾錢 同 孫聖福 拾五錢 同 柳寅貞 拾錢 清安面邑內里 李松得 四拾錢 同 許龍春 拾錢 同 姜大應 拾錢 同 金命淳 拾錢 同 崔栽圭 貳拾錢 同 李東根 拾錢 同 方福萬 五拾錢 沙梨面沙潭里 權重容 貳拾錢 同 李弘儀 貳拾錢 忠北槐山清安面 金好眞 參拾錢 同 成炳鎬 貳拾錢 同 安龍基 五拾錢 同 鄭昌福 五拾錢 同 金寅植 貳拾錢 同 李南山 五拾錢 同 李順雨 拾錢 同 件福順 五拾錢 同 申性任 五拾錢 同 申英子 貳拾錢 同 金壽明 五拾錢 槐山郡曾坪面松山里 池台夏 五拾錢 忠北槐山清安面 朴瑛東 五拾錢 槐山郡曾坪面松山里 李根奭 拾錢 同 崔致瓜 拾錢 同 金明漢 五拾錢 同 金顯商 五拾錢 同 張達永 五拾錢 同 朴昌雲 拾錢 同 李公雨 拾錢 同 韓義壽 拾錢 同 延商圭 拾錢 同 無名氏 拾錢 同 張永俊 拾錢 同 徐百元 拾錢 同 李千石 拾錢 同 李俊三 貳拾錢 同 鄭乙仙 拾錢 同 高龍元 拾錢 同 李雲夏 拾錢 同 辛三圭 拾錢 同 辛鳳圭 貳拾錢 同 朴魯成 拾錢 同 辛炳玉 貳拾錢 同 張明錫 拾錢 同 朴炘熙 貳拾錢 同 金奉寬 拾錢 同 趙東燮 貳拾錢 同 鄭東玉 拾錢 同 鄭己成 參拾錢 同 姜壽熙 參拾錢 同 李像鎬 參拾錢 同 高光普 貳拾錢 同 金永七 壹圓 同 禹炳錫 貳拾錢 同 愼鍾石 五拾錢 永昌理髮所 壹圓 同 東亞理髮所 壹圓 同 中央理髮所 五拾錢 沙梨面芳楠里 尹宗老 拾錢 中興里 洪鍾華 貳拾貳圓四拾七錢 清安青年及留學生樂大會收入分 拾錢 同 禹鍾五 拾錢 同 李福成 拾錢 同 李金龍 五拾錢 同 成萬聖 拾錢 同 白順玉 拾錢 同 趙板根 拾錢 同 崔昌根 拾錢 同 李昌雨 拾錢 同 朴莉圭 拾錢 同 金顯日 參拾錢 同 朴秀南 拾錢 同 金甲順 拾錢 同 尹景出 五拾錢 同 金忠玉 拾錢 同 韓明山 拾錢 同 李鍾完

◎金貳拾七圓八拾錢也 清州支局四回取扱分

(內譯) 五圓 清州華盛館主 李正華 貳拾錢 同 李永達 貳圓參拾錢 同妓生 金明子 貳圓參拾錢 同 李鶴仙 貳圓 同 盧白鶴 貳圓 同 金玉香 貳圓參拾錢 同 韓樂子 貳圓 同 金花香 貳圓 同 韓月仙 壹圓四拾錢 同 鄭明花 貳圓參拾錢 同 尹素月 壹圓 同 韓錦玉 壹圓 同 丁蓮玉 壹圓 同 李玉花 壹圓 同 李玉仙

◎金六拾八圓五拾貳錢也 各個別義捐額

(內譯) 拾五圓 安城天主敎會敎友一同 四拾參圓九拾六錢 會寧邑鷄林館妓生一同 七圓五拾六錢 榮東振興會及榮東無產兒童講習會 貳圓 昌道少女俱樂部員一同

小計金 貳百七拾圓九錢也

累計金 貳萬貳千五百九十七圓也

車掌、運轉手는勿論 平壤府當局을痛擊

정원이상을 태운 까닭이라고

平電衝突事件公判

【평양】 부전 충돌사건의 책임자로 법정에서게된 평양부전운전수 김정남(金正南)(二〇)과 차장 정석주(鄭錫周)(二〇)의 제二회 공판은 二十七일 평양지방법원에서 서전(西田) 판사담임 암성검사의 입회로 개정하고 이날심리를마친 다음 검사는 운전수에게 금고八개월 차장에게 금고六개월을 구형하였다。이어 검사의논고와 구형에 이번사고의 책임이 그책임자인 운전수와 차장은물론 나아가서 경영주체인 평양부당국에 책임이있음이 명료하여젓다。검사의 논고요지는 규정이상의 인원을 승차시킨것이 이번사고의 원인으로서 이것이 부당국에 책임이있음은물론이나 그운전수와 차장의과실이므로 금후를 경계하기 위하야 엄중처벌할것이라는 것이엇다 한다。

宣川留學生會 學術講演會

【선천】 선천유학생회주최 본사선천지국(宣川支局)후원의 제一회학술강연(第一回學術講演會)는 예정대로 지난 二十七일밤 八시반 선천읍 명신학교에서 개최한바 연사들의 열변은 청중으로하여금 큰감동을 주엇다고한다。

殺人强盜犯 死刑을求刑

판결 언도는 오는 九월四일

平壤府山手町事件

【평양】 부내 산수정(山手町) 살인사건의 피고 평원군(平原郡)(二〇)의 강도 살인사건의 공판은 二十八일 평양지방법원에서 소림(小林) 재판장 주심 암성(岩城) 검사 입회로 개정하였다는데 피고는 범행을 깨끗이 시인하엿다음 심리를 마친다음 검사는 사형을 구형하였다。판결은 九월四일에 언도하기로 하고 폐정하엿는데 피고는 비틀거리는 거름으로 간수에게 끌리어 퇴정하엿다 한다。

高普學館移轉

【평양】 부내 순영리(巡營里) 고우회평양지…

漁村高利債 五萬八千圓

【포항】 경북도산업과에서는 어촌진흥 운동계획을 착착진행중인데 표본(標本)기수를 어촌에파견하야 어민의 실정을 조사하야 어촌경제의 곤궁은 고리채(高利債)에 잇다하야 경정 四백四十一호의 조부채 五만八천七백九十원중 五할五분은 금융조합또는 어업조합의 저리자금이오 四할五분은 개인의 고리채라는데 그정리방법은 五개년계획을 세워 개인고리채부터 점차정리하기로 결정하엿다고 한다。

甥姪婦密通코 조카殺害 未遂

다시밀정으로 밀고하다가

結局檢察局身勢

【안동】 조카의몸을탐하여 의 밤하고이것이 조카에게 발각되자 조카를 꾀여내다가 살해하려다가 목적을 달하지 못하게 되매 조카를 반만군(反滿軍)의 밀정이라고 경찰에 밀고하엿으나 취조의결과 전기사실이 탄로되어 살인미수와 무고죄로 안동지방검찰국에 송국된 사련(邪戀)에 눈어두운 사내가잇다。

안동현 제四구 전양산촌(前陽山村) 농업 고련상(高連祥)은 처의 병을 간호시키려 대동一년 九월부터 조카 종재희(鍾財會)부처를 데려왓섯는데 조카 처 종금화(鍾金花)와 금년五월 一일밤 조카가 없는 틈에 불륜의 관계를 맺엇섯는데 이것이 조카의 알바 가되고 또 조카가 분국에 발표한바 가되자 조카를 살해할 목적으로 六월 十三일밤 「조선에 밀수입품을 부고왓스니 이를 운반하여오면 二十원의 이익이 생긴다」고 꾀여 내다가 압록강(鴨綠江)을 건느는 틈을 노(櫓)로 조카의 머리를 따리어 물에 떠러트리엇으나 총은 다행히 언덕까지 헤엄처나와 이사실을 제四분국에 신고하엿다。이같이 되자 고는 간계를 꾸미어가지고 안동헌병분대에 달려가서 총이 반만군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잇다고 밀고하엿으므로 헌병대에서는 총을 체포취조하엿던바 이어두운 고의 무고인것이 탄로되엇으므로 고를 체포하야 안동경찰청경유로 二十七일 검찰국에 송치한것이라 한다。

人夫感電卽死

【진남포】 진남포 비석리(碑石里) 시재경(申載敬)은 지난二十七일 오전九시반경 동구내 二천二백五十五번지 제련소(製鍊所)에서 노동을 하고잇던바 … 전기에 감전되자 그만 절명되고말엇다。

長湖院軍優勝

【괴산】 충북 괴산체육연회(槐山體育協)주최로 지난二十六일 오전十시에 괴산공보교 코-트에서 개최하엿는데 참가조 十六조의참가로 성황을 이루엇으며 우승은 장호원군으로 영구히 도라가섯다한다。

고등어豊獲 三百餘萬尾

영일 어업조합 구내에서

◇昨年의二倍以上

【포항】 불황에우는 소어민(小漁民) 구제책으로 영일어업조합(迎日漁組)에서 시험중이던 고등어 연승(鯖延繩) 어업은 비상히 호성적이어 작년부터 영일군내 각어업조합에서 장려하야 어획고 백六十만마리(尾)의 四十만원이라는 놀라운 성적을내어 소어민 구제의 적지안흔 도움이되엇으므로 금년부터는 경북연안 一제히 장려하엿든바 그어획 三백五十만마리에 달하는 호성적으로 작년의 배이상에 달하엿다는데 이어업은 소자본으로 할수잇는 간이(簡易)어업으로 여름 한어기(閑漁期)에 할수잇어 앞으로 크게 기대된다는데 八월중으로 종어(終漁)된다 하며 각어업조합의 어획고는 다음과갓다。

迎日漁組 七十萬尾
九龍浦漁組 八十七萬五千尾
長鬐漁組 七十五萬尾
江口漁組 五十二萬五千尾
其他 六十五萬尾
計 三百五十萬尾

西道個人庭球

【서흥】 서흥공보 동창회주최 본사서흥지국 후원의 서조선개인정구대회는 예정과같이 지난二十六일 오전十시부터 서흥공보교운동장에서 개최하엿는데 참가조가 十六조에달하야 대성황리에 끝마치엇다는데 우승은 사리원김광범 김윤하(金光範、金允河)조에 돌아갓다고한다。

龍光病院非行云云으로 奉天有志査問會

위선 경고문을 보내기로 하고

關係當局에는要望書

【봉천】 봉천(奉天)에잇는 조선인측대의 용광의원장(龍光醫院長) 정석용(鄭錫鎔)씨는 봉천에잇는 빈궁민 환자의 시료를 목적으로 매월백五十원씩의 보조를 받는 처지에잇음에도 불구하고 일반환자에게 대하야 불친절하엿고 더욱무료시료환자에게 대하야는 불친절한것이 비일비재라하든지 음에 정씨의 부인의 불근신한 언동으로말미암아 봉천 조선청년회(奉天朝鮮青年會)주최로 일반 사회유지사회(社會有志査問會)를 지난二十七일오후七시부터 당지 조선인 노동조합(朝鮮人勞動組合)에여럿는데 당일 출석인사는 남녀四十여명에 달하고 봉천경찰서 영사관 경찰로부터 여러경관이 임석한 가운데 … 씨지도로 의사를 자청한결과 정씨의부처는 그행동이 용서할수없다하야 강경한 경고장(警告狀)을 보내고 일편으로 거류민회(居留民會)에도 정씨를파면하라는 요구를 하기로한후 동十一시에산회하엿다 한다。

말할수없소

◇副領事 吳斗煥氏談

전번 사문회(査問會)석상에서 산포된 피문서 사건과 그학제의 좌처와 용광의원파 무슨관련이 잇다는 몃가지의 실례를 지적하엿다는말은 들엇습니다 만은 나는 정씨부처의 비행문제는 말하고 싶지 안습니다。 축하의의 파면은 어디서 하느냐고요? 그것은 거류민회장의 자격권한에 속하는 것입니다」운운

評判이不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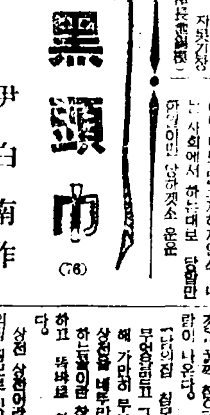
◇居留民會理事 朴準秉氏談

용광병원 정석용씨는 우리민회에서 촉탁의로 임명하야 조선인 빈궁민의 병자를 시료하도록 되엇습니다。그러니까 일반민중으로부터 고맙게 대접을 받어야 하고 그가 이제 도리어 정당히 조선인대중으로부터 원수같이 생각하게 되엇음은 지실로 유감천만이외다。즉시 파면시키겟느냐고요? 그것은 현재 민회장이 이 여행중이므로 민회장이 돌아오는대로 대책을 세우겟거니와 사실상 원래부터 그가 가지는 소행에 대하야 우리민회로서도 아미잘알고잇습니다。

社會에一任

龍光醫院長 鄭錫鎔氏談

이사건의 내용을 說明할 필요가업습니다。벌서 각신문지상(奉天日日、奉天每日、奉天新聞、滿洲日報、朝鮮日報)에 발표된것이 나도 말고저하지안소。나는 사회에서 하는대로 당할만 하엿이면 당하겟소 운운



黑頭巾 (76)

尹白南 作
李靑田 畵

七、七人身勢 (六)

다섯사람들에 산월 열하로人날 이날은 옹서의 생일이엇다。유모는 침모에게 남몰래 귀트엄을해서 색동두루마기를 해 입혀다 보냇당사에다가 지지안을 바치고 오색이 영롱한 색동을 받어 입엇다 종들은 이것은 대방에서도 … 고 또 마침 어이 밧브기도 해서 무심히 지술어가게만 해 입혀 더니만은 이것을 본 적출도련님의 무룸이 등등 부엇다。적출도련님은 대청에서 디굴디굴 굴면서 청얼거리다가 별안간 어머니 무릎에가서 엎대서 느껴가며 울엇다。왜 나는 색동 두루막이를 아니해주느냐고 떼를 쓰고 울엇다。박순이부인의 눈이 점점 빼압의눈처럼 쌀쌀하게 되기시작하드니마는 「이애 침모좀 불러라」 하는 서릿발이로 찌르는듯한 호령을 나렷다。엉겁결한 김에질려 서 허둥지둥 침모는 방으로가서 「여보슈 또 무슨 거젓을 허실라는지 침모님 오시라우」 「무간」 양해가 잇엇지니와 침모지신의 주선이 매우 유력하엿다。그러더니 이 색동두루막 하나가 ─ 침모와 유모의 호의가 마침내 한개의 비극을 자아내고 말앗다。

오히려 가지를 해서입히는 것이 잇엇드면 도 하지마는 상이 되고 말앗다。그래 침모는 나서야 재촉에게 차려가 좌앗소 … 적출 도련님의 적이요 그래 침모는 이번에는 생일날도 되엇다。

「[나]의집 침모노릇하는 위인이 무엇하라는 그따위 범한 것을 해 가만히 두고 보라니까 바루 상전을 내두라보잡고 제맘대로 하는구먼이란 참 볼수없어」

「[나]의집 침모노릇하는 위인이 … 「예─ 이 소위 재상의부인이라하이 고까지 배리를가시고 하고보면 그저 당장에 야 내기꽁이 섬하겟다」 하고 욕설을 해부치고 살엇시마는 앗어라 팔人자가 기구해서 서방까지 잡어먹고 남의집 침모노릇을 하는위인이 그런다고 누가 나를 울타하라하고 창살수없는 경과 공력 참으로 나 엿지며 구지 람이 나온다。 「[나]가 그랫다니 갑시루 무턱 을 만들엇다 깁대 갓다가 지어 주라구 그랫지 누가 색동을 넣어 색동두루마기를 맨들라고 다른 도련님의 것두 만드러노코서 해 줘야지 그래 도련님들이 안 어보지도못하엿습소 제 아무런 없이 하필 중한것을 만드는 법이 어디 잇나」 하고 문간에 온 거지같이 꾸짓듯이 패패이 꾸짓는다。 침모는 분대로 「마님이 그러섯소 누가 그래요 헌겁을 오라지 내마대로 써보란 이 없엇습니다」 「그게 할소리야 자네더러 무엇이 분에 안이지 누가 색동을 넣으라고햇서」 누가 그게 무슨 불쾌스런말이야 대체 부인은 「그게 할소리야 자네더러 무 엇이 나오너라 이말에 정성이 원하나시 오 이가 도망이너 「미에서 침모의에 박금는지는 다。 의대답은 조금 용하스럽게 나갓 「제술하의 두루마기를 자네가 지 어지는 상 어다보고는 니 마는 불룸으로 가 침모는 처 처음엔 외 조용히 반 말하던 옷감을 … 「[무]가 이 ─ 제가 시 침모는 벌서 …」 「네 ─」 하고 욕을 하고 정말 그리 자기 방으로 나 려갓다。

社告

任退社分局長 李鼎政
任記者 朴斗鍾
退社分局長 金東壎
依願解職

昭和九年八月十七日
東亞日報社 襄南支局

三嘉駐在記者 金政祚
依願解職

昭和九年八月十五日
東亞日報社 慈城支局

任能社駐在記者 韓秉兆

昭和九年八月二十九日
東亞日報社 茂山支局

ClibPDF - www.fastio.com

陶磁器令中止

日蘭兩代表間에 解決案을決定

【[illegible]二十八日發】今日의 [illegible] 日本의 [illegible] 陶磁器 [illegible] 中止하기로 約束하엿다한다

陶磁器問題以外는 意見이不一致

【[illegible]二十八日發】日本側의 [illegible]代表, 蘭印側의 [illegible] 二十八日午前十一時부터 [illegible] 午後二時十[illegible] 明日午前十一時부터 다시 續行하기로 約束하고 散會하엿다

兩代表會談 今日도續開

【[illegible]二十九日發】[illegible]

會議의鍵은 依然海運問題

【[illegible]二十八日發】[illegible]

對外爲替市況 (八月二十九日)

▲東京電話

對米	賣	三十弗十六分一
對米	買	三十弗十六分一
對英	賣	一志二片四分一
對英	買	一志二片三十二分九

▲大阪電話

對米	賣	三十弗十六分一
對米	買	三十弗十六分三
對英	賣	一志二片四分一
對英	買	一志二片三十二分五

長期正租貯藏으로 地主는二重利得

古米格의 補償交附金을減額

目下農林省서調査中

貯藏米의 [illegible] 補償에 反하야 지못 不[illegible] [illegible]

職工組合側容認 圓卓會議招請을

【[illegible]二十八日發】[illegible] 政府의 招[illegible]

見本市補助 京城商議에서 千五百圓支出

京城商工會議所에서는 廿八日午後二時부터 役員會를열고 [illegible] 見本市에는 千五百圓을 補助키로 決定하고 [illegible] 月二十日까지 [illegible] 하엿다

滿洲國의木稅法 九月一日부터實施

【新京二十八日發聯合】滿洲國에서는 [illegible] 九月一日부터 實施키로되엿다

뉴욕爲替强調

【[illegible]二十九日發】二十八[illegible]

中、銀國外流出은 不遠常態에復歸?

銀輸出禁止는風說

【[illegible]】[illegible]

金貨强制買上 規定을設定

大藏省에서研究中

【[illegible]電話】大藏省에서는 [illegible]

米日爲替小高

【[illegible]二十八日發聯合】[illegible]

外國人投資利益에 米、所得稅徵收?

[illegible]

電信電話料、郵便 不遠間正式改正

遞信省에서研究中

【[illegible]二十九日發】[illegible]

局鐵朝鮮米發送 (八月二十八日)

	本年	前年	比較
釜山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大田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京城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平壤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元山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城津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合計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累計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合理的肥料配給코저 共同配給所設置

京畿道農會서仁川에

金融의 [illegible] 京畿道農會에서는 [illegible] 仁川에 [illegible] 附設하기로 決定하엿다

三三年以來財政增收 三十二億圓을突破

平價切下差益金은一般會計에編入

米財務長官財政演說

【[illegible]二十八日發聯合】[illegible]

一、一九三三年 三月四日以來의 國家現金收入의 收入增加 十六億弗

一、弗價切下에依한 金利潤은 二十八億弗

一、新政府收入增加 [illegible]

米倉新倉庫 農林省補償

建設도着着進工中

米倉會社가 三百五十萬圓을 投하야 三萬五千噸의倉庫를 建設하고 [illegible]

開城人參最低標準價格表 (八月二十四日調定)

[illegible]

五月을最高로 綿布輸出減少

紡績聯合會調査의 綿布輸出量은 五月의 二億六千五百六十二萬二千야드를 最高記錄으로 減少하기 시작하엿다 [illegible]

	七月	前月比較
滿洲	[illegible]	[illegible]
中國	[illegible]	[illegible]
英領印度	[illegible]	[illegible]
蘭領印度	[illegible]	[illegible]
近東諸國	[illegible]	[illegible]
中南米	[illegible]	[illegible]
埃及	[illegible]	[illegible]
亞弗利加	[illegible]	[illegible]

朝鮮證券取引 東亞證券株式會社

今日의市況 (八月廿九日)

株式 (單位十錢)	前場	後場	比較
朝新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東新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期米 (單位圓)	前場	後場	比較
仁先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大先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正租 (仁川)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正米 (三等單位)	前日	時勢	比較
京城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仁川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商品 (單位十錢)	前場	後場	比較
綿絲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人絹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地金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五品FAQ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時勢와市況

株式 閑散裡 上向

前場閑散 昨後場不勢 裡에 低迷

[illegible]

後場好勢

[illegible]

場面依然膠着 戾賣傾向濃厚

[illegible]

分岐如何注視 雙力共히不氣乘

[illegible]

財◇海◇餘◇波

[illegible]

實物賣買價前場

[illegible]

朝取主要株取組

[illegible]

東京國債市場

[illegible]

朝取短期前場步調

[illegible]

朝取短期後場步調

[illegible]

大阪短期前場步調

[illegible]

大阪短期後場步調

[illegible]

米 場合 伸悩

前場頭重

[illegible]

後場伸悩

[illegible]

厄日平穩豫想 厭氣投物續出

[illegible]

米豆雜感

[illegible]

米穀根本對策 調査會를注目

[illegible]

正米 各地商況

京城保合 [illegible]

仁川下支 [illegible]

南浦軟重 [illegible]

釜山强含 [illegible]

大邱保合 [illegible]

群山軟化 [illegible]

木浦反撥 [illegible]

株式

朝取短期賣買高 [illegible]

各店 賣買 高 場合

[illegible]

海外經濟·金融及商品市況

[illegible]

期米

[illegible]

ClibPDF - www.fastio.com